방역 뚫린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 전남 … 확산 땐 피해 '눈덩이'

AI 공포

전국 오리의 43% 800만 마리 키워 닭도 3200만 마리

철새도래지 많아 불안 소비 위축 땐 가공업체까지 확산

26일 나주시 세지면 한 오리 농장에서 살처분 한 오리를 땅에 묻지 않고 자연분해 시키기 위해 관계자들이 왕겨와 톱밥을 뿌리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도된 이 방식은 침출수도 발생하지 않고, 산채로 가축을 매립했던 기존 살처분에 비해 친환경적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남군 송지면의 종오리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 H5N8형 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전국 최대 오리사육지인 전남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이번 AI의 감염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창오리 도래지와 오리 사육농가가 많아 AI 확산에 따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3년 만에 전남지역 AI 공포=해남의 한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에서 H5N8형 항원이 검출되면서 전남지역에도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첫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의 닭이나 오리가 AI에 감염된 것은 AI와 구제역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그동안 철새만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바 있다.

전남 농가에서는 전국 43%에 해당하는 800만 마리의 오리를 키우고 있고,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3200만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위험지역 내 닭·오리농장 8곳의 26만4300마리에 대해 27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우선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해남의 신고 농장과 같은 주인이 운영하는 나주와 영암 농장의 종오리 3만2600마리는 26일 살처분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 1~3월 나주, 영암, 화순, 장흥, 보성, 여수, 담양, 고흥 등지에서 AI가 발생, 오리와 닭 308만8000여마리가 폐사해 37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철새도래지 많아 확산 우려 커=전남에는 영암호, 금호호, 고천암호 등 과거 AI 양성 반응이 나타난 철새도래지도 많아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AI 감염 농장을 다녀간 축산 관계자들이 일하는 농장만 무안, 구례, 곡성 등 15곳으로 조사돼 도는 전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최근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되는 새들이 있어 AI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4일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영산강 지류 소하천에서 왜가리 4마리와 청둥오리 1마리 등 모두 5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방역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다행히 아직까지 다른 철새도래지에서 폐사한 철새에게서는 AI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가공·유통업체들도 비상=전남에서도 AI가 첫 발병 하면서 육계·오리 가공·유통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감염 농가와 인근 농가에서 살처분이 이어지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오리 가공 단일공장으로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장흥군 소재 코리아더커드 산하 '다솔'과 지난 1974년 설립된 육계·오리 가공 유통업체인 나주의 사조화인코리아 등 대형 가공·유통 업체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아직까지 공급 농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만 AI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장은 주변 소독, 공장 출입자 제한 등 공장 자체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또 이들 중 한 업체는 최근 일본과 중국 등과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중 전북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수출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도 AI가 발생한 만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AI방역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임동률기자 kroh@kwangju.co.kr

"정당공천 폐지·특검 도입 협력"

김한길·안철수 회동 "야권연대 논의 안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관철하는 데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은 회동에서 "대선공약도 이렇게 쉽게 번복하는 새누리당에서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공약 신뢰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양측 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4면〉

대변인들은 또 "김 대표와 안 의원은 (앞으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협의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6·4 지방선거 야권연대에 관해서는 양측 모두 "논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야권연대나 단일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했고, 안 의원은 "연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양자가 '집권 세력 심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앞으로의 대화에서 심판 방식의 하나로 연대, 또는 후보단일화가 결국 논의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주시장·전남지사 출마선언 잇따라

이용섭 내달 5일·김영록 12일 경쟁구도 윤곽 점차 드러나

이용섭 의원 김영록 의원

설 연휴를 전후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광주·전남 시·도지사 선거 경쟁구도가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장 출마가 거론돼 왔던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의원은 설 연휴를 끝난 다음달 5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이 의원 측은 26일 "이 의원이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출마하기로 최종 결심했다"며 "다음달 5일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 간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지난 2010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때 강운태 시장이 이용섭 의원은 0.45%포인트 차로 이겼다.

민주당 주승용(여수 을)은 27일 오전 10시30분 전남도의회에서 '당당한 전남, 준비된 도지사'를 슬로건으로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한다.

주 의원 측은 "출마선언 후 첫 방문지로 신안 흑산도를 찾을 계획"이라며 "전남의 끝자락에서부터 낙후와 소외의 그늘을 벗겨 내고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의 기회를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도 다음달 12일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전남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출마기자회견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 건설을 위한 비전과 '도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 도지사'로서의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리 주재 AI 긴급 관계장관회의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전남 방문, 방역상황 점검

전국 최대 오리 사육 지역인 전남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고심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방역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애초 이 회의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총리 주재로 격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대책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시행하는 등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또 앞서 지난 25일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을 방문, AI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나주 IC에 설치된 이동 통제초소를 찾아 차량 소독과 통제상황을 지켜보고 방역 요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오리 사육·가공의 중심지인 나주에서 AI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농가들의 자율 방역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나주에 이어 가창오리 월동지인 영암호 등을 둘러본 뒤 씨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해남군청에서 방역 등 대책을 보고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굉장히 고민 중 … 호남 위험하다면 구원투수로 나설 용의"

박지원 전남지사 차출론

박지원 의원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6·4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차출론이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데 대해 "명분상 중앙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철수 태풍으로 위기가 온다면 실리론으로 호남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에 출연해 "만약 호남이 위험하다고 하면 저라도 구원투수로 내려가 한번 싸워볼 용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안철수 태풍이 확 왔다가 가셨지만, 만약 안 의원이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후보를 내 또 다른 태풍이 분다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측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은 후보가 나올 때에는 구태여 제가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중앙정치를 하고 싶지만, 정치는 알 수 없는 생물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지, 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원하고 깨끗한 소리 - 소리샘보청기

microtech SORISEM 소리샘 보청기

2014 GOOD NEWS

중고보청기로 50~100만원 보상받고 신제품으로 구입하세요

■ 소리샘보청기 모델 뽀빠이 이상용

사용하지 않는 모든 보청기와 증폭기를 신제품으로 구입시 속 시원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중고보청기 보상판매 행사

- 기 간 : 2013년 12월~2014년 2월 28일 까지.
- 보상금액 : 아날로그보청기 : 50만원 (음성증폭기 포함) 디지털보청기 : 100만원
- 보상모델 : 귀걸이형, 귀속형, 음성증폭기, 타사제품도 가능.
- 행사장소 : 소리샘보청기 각 지역 가맹점(센터)
- 신제품 행사 모델은 가맹점(센터)에 문의 하세요.

* 단, 보상금액은 보청기 구입시 만 적용 하며 현금 보상은 안됩니다.

귀가 답답하시다구요? 지금, 소리샘보청기 전국가맹점에 문의하세요 !
1588-2008
www.sorisem.co.kr

무료배포
지역 센타로 전화를 주시면 "보청기 구입전 알아야할 상식" 책자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제조원,수입원 : (주)스타키코리아
*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01452

소리샘보청기 가맹점 문의 02-499-7300

호남권 ●광주남구센터 062-673-8070 ●광주동구센터 062-234-5853 ●목포센터 061-284-4815 ●순천센터 061-744-5013 ●익산센터 063-841-1149 ●고창센터 063-561-0603 ●여수센터 061-684-2800

서울권															
종로센터	02-2269-9911	홍제센터	02-725-5869	평촌센터	031-388-5666	파주센터	031-946-6464	강원권		횡성센터	033-344-5233	괴산센터	043-832-2364	대구중구	053-253-6868
강남센터	02-572-6662	강서센터	02-2658-0023	부천센터	032-322-7782	분당센터	031-704-5255	원주센터	033-743-0533	충청권		진천센터	043-536-6003	마산센터	055-245-7898
대림센터	02-858-2750	강북센터	02-945-2393	수원센터	031-252-3992	일산센터	031-923-9339	강릉센터	033-641-8129	대전중앙	042-931-4121	청주센터	043-225-0038	부산서면	051-816-9771
중랑센터	02-744-7558	경기권		동인천센터	032-764-1411	강화센터	032-933-2565	춘천센터	033-243-9969	대전중구	042-221-4260	영남권		진주센터	055-741-1252
		구리센터	031-555-2700	남인천센터	032-421-0001	오산센터	031-378-5233	동해센터	033-532-4171	금산센터	041-754-8484	대구성서	053-526-9555	김해센터	055-324-2789

창원센터	055-288-8088	진주거성	055-755-5668	제주권											
울산센터	052-269-2900	제주센터	064-753-5347												
고성센터	055-674-7030														
장유센터	055-331-3665														
창녕센터	055-533-9022														